



최은혜

〈소프라노〉

최고상 수상

독일 하노버 국립극장 솔리스트
광주시오페라단 ‘라 보엠’ 주인공



유지후

〈플루트〉

최고상 수상

싱가포르·홍콩 국제콩쿠르 주니어 1위
서울 금호아트홀 금호영재콘서트 무대에



남린

〈바이올린〉

최고상 수상

예원학교 수석 입학·한국예술영재교육원
2016 이시가와 뮤직 아카데미 음악상

호남예술제 출신들 국내·세계 무대에서 맹활약

올해로 61회를 맞은 호남예술제 출신 예술인들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연된 광주시오페라단의 뮤지컬 ‘라 보엠’에는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인 소프라노 최은혜(28)씨가 주인공 ‘미미’ 역으로 출연, 눈길을 끌었다.

광주예고 2학년 때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과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던 최씨는 현재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박사 과정에 재학중이다.

독일 오스나브뤽 극장 객원가수를 지낸 최씨는 최근까지 독일 하노버 국립극장 오프스튜디오 솔리스트로 활동하며 ‘박쥐’, ‘피가로의 결혼’을 비롯해 현대 오페라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다.

최씨는 지난해 열린 정음성숙제 광주성

악콩쿠르에서 2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향에서의 오페라 데뷔 무대와 긴장도 됐지만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하노버 극장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지만 해외 콩쿠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계약은 하지 않았어요. 제 나이가 이제 앞으로 진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무대에 서보는 거예요.”

11월까지 한국에 머물게 될 최씨는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우리가곡부르기회’ 11월 행사에 참여해 이수인 곡 ‘내맘의 강물’, 정애련 곡 ‘별을 깨는 밤’을 들려준다.

호남예술제 플루트 부문 최고상 출신인 유지후(13)군의 활약도 눈부시다.

유 군은 지난 8월 만 17세까지를 대상으로 열렸던 싱가포르 플루트 페스티벌 주니어 부문과, 홍콩 국제콩쿠르 주니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이화경향 콩쿠르에서도 1위를 수상했으며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금호영재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유 군은 또 현대차정몽구 재단 ‘2016 문화예술 장학생 문화예술 부문 장학생’으로 선발돼 중학 과정 전체 장학금을 받게 되며 해외 주요 콩쿠르 출전시 참여 경비도 지원받는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다니며 올해 예원학교에 입학했던 유군은 현재는 미국

등 외국 유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 등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홈스쿨링 중이다.

올해부터 서울로 거처를 옮겨 본격적인 레슨을 받고 있는 바이올린의 남린(서울신중초 6년)양은 최근 서울 예원학교에 수석입학했다.

호남예술제 최고상 출신으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수학중인 남 양은 2017 예원학교 입학식에서 피아노, 첼로 합작자들과 함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남양은 또 2016 이시가와 뮤직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제4회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 캠프&콩쿠르에서 초등학교으로는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동영상을 클릭하자 바닷가 모래사장엔 놓인 메트로놈(음악의 박자를 나타내는 기계)이 등장한다. 그리고 얼마후, 메트로놈의 추가 빠르게 움직이더니 파란색 지붕이 인상적인 마을이 나온다.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연상케 하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이다.

3년 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라 반가운 마음이 든 것도 잠시, 화면은 주름이 깊게 패인 어부의 얼굴과 함께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로 바뀐다. ‘지금 몇시입니까’(What time is it now). 짧은 영어자막을 뒤로 푸른 바다를 앵글에 담은 사진작가 김홍희씨의 모습이 감각적

역 예술가들이다. 동래학춤 예능보유자 이성훈,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정, 마술사 이창민, 아쟁연주자 장은교 등 2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깜짝 등장’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난 7일 유튜브에 이 영상이 첫선을 보이자마자 전 세계에서 조회수가 수천 건을 넘어섰다. 댓글들을 들여다보니 매력적인 부산의 모습에 반했다며 기회가 되면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순간, 지난여름 마스크에 등장했던 웹 드라마 ‘월스 어폰 어 더 임인 광주’와 이창호 감독의 ‘웰컴 투 창장터’ 영화가 오버랩됐다. ‘월스 어폰 어 타임인 광주’는 스마트

당신이 그리는 광주의 모습은?

인 음악과 어우러진다.

며칠 전 유튜브 채널에서 접한 부산시의 브랜드 필름 ‘다이내믹 부산’의 한 장면이다. 3분30초 짜리 영상은 ‘부산의 시간’을 주제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부터 자갈치 시장, 부산 사직구장, 해운대, 영도대교, 168 계단모노레일 등 도시의 역동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일반인들엔 다소 생소한 브랜드필름은 CF나 홍보영상과 달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스토리로 엮어 품격있는 이미지로 제작한 영상을 말한다. 최근 기업광고에서는 자주 시도되지만,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부산시가 ‘다이내믹 부산’을 제작한 이유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알리기 위해서다. 내레이션과 카피를 크게 줄인 것도 세계인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배려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부산시

폰을 매개로 조선시대 남자와 2016년의 여자 주인공이 시공간을 초월해 사랑을 나누는 줄거린다. 이창호 감독의 ‘웰컴 투 창장터’는 창장터를 배경으로 시골 아줌마들의 좌충우돌 배우 도전기를 다룬 20분 짜리 단편영화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사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는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정도로 꽤 위력적이다. 특히 회색빛 도시에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데 영화만큼 효과적인 매체도 없다. 그런 점에서 광주 매력적인 ‘공간’과 예술가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작’이 없다는 건 씁쓸하다. 그것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말이다. 만약 당신이 광주만 브랜드필름을 제작한다면 어떤 곳을 담고 싶은가. 상상만 해도 설렌다.

〈편집부장·문화선임기자〉

순천만의 가을 가곡으로 부른다

우리가곡부르기, 11월 강숙자오페라라인

하늘거리는 갈대가 우거진 순천만의 가을을 가곡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가 오는 11월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회에서 11월 행사를 갖는다.

‘그리운 순천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박원자 시인이 쓴 ‘그리운 순천만’에 김대웅 작곡가가 곡을 붙인 가곡을 배우고 함께 부른다. 가곡에는 시를 읽고 순천만 정서를 느끼기 위해 직접 답사까지 한 김 작곡가의 노력이 숨어있다.

또 ‘나뭇잎 배’, ‘노을’, ‘고향 생각’, ‘고향 그리

워’, ‘이별의 노래’ 등 가을과 어울리는 동요·가곡을 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서울에서 이명숙·김재규 시인을 초청해 ‘그리움은 낙엽 되어’, ‘고운 인연’을 연주하는 특별한 무대도 마련한다.

꿈나무 연주에는 최지예(금호중앙중 3)·김유진(신창중 1)이, 회원연주에는 박진영·심우호·이규택·정경숙씨가 참여한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en-ABLE 극놀이학교’ 연극 공연

오늘 빛고를시민문화관

(사)광주장애인재활협회(회장 신종인)가 9일 오후 2시 빛고를시민문화관에서 지역 내 장애인청소년들로 구성된 ‘en-ABLE 극놀이학교’ 연극 공연을 개최한다.

협회는 연극을 통한 장애인청소년들의 사회재활을 돕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전문연극강사진과 함께 ‘en-ABLE 극놀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내 친구 도시락’이다. 문정여고 학습도움실 장애학생들이 연극배우가 돼 시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주인공 공희수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본 공연과 더불어 특별공연으로 극놀이학교 제 4기 동아리팀이 뮤지컬 ‘페인’을 재구성해 선보이며 다양한 체험부스와 전시부스로 운영한다. 무료 공연. 문의 062-368-66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젠더 브리프’ 제23호 발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 브리프’ 제23호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광주지역 가족친화인증 도입 성과 및 향후 도입 요인 발굴’이 주제다.

1장 ‘광주지역 가족친화인증제도 추진 현황’에서는 제도 소개와 함께 2011~2015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지역 26개 기업(기관) 인증 전·후 효용성을 분석했다.

2장 ‘광주지역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운영 실태 및 정책 요구’에서는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인센티브 발굴 등 향후 도입 요인 발굴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3장 ‘광주지역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법제도 정비, 교육·컨설팅 강화, 인센티브 발굴·확대 등을 통한 홍보 다양화를 제의했다.

/김미은기자 mekim@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